

목포 서산·온금지구 재정비계획 변경 아파트 층수 낮추고 테라스 혼합 개발

시, 시민사회단체 등 반발 수용

조선내화, 복합문화공간으로

촉진구역 기한 10월5일까지 연장

목포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이 아파트와 저층 테라스를 혼합해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서산동·온금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노후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서산·온금지구는 2008년 주민 주도형 재정비 사업으로 발표된 뒤 2012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촉진계획이 승인됐다.

하지만 2017년 10월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고시 후 같은 해 12월 조선내화(주) 목포공장이 등록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유달산 경관 훼손과 관광·문화 활성화를 이유로 뉴타운식 고층아파트 개발 방식에 반대하며 촉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등 개발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빠졌다. 목포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방안을 조합에 설명했고, 이후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조선내화 부지를 제외한 지구에 아파트 층수를 낮추고 저층테라스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목포시는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상생안 합의에 대한 조합의 양보와 개발 지연에 따른 조합원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촉진구역 해제 기간 연장 필요성도

알렸다. 조선내화는 문화재청 승인을 얻어 복합문화공간으로 보수·정비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조선내화에서 건축 대수선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는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에 대한 촉진구역 기한을 내년 10월5일까지 연장했고, 아파트와 저층테라스를 혼합한 기본계획안으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 오랜 기간 진척되지 못했으나 상생안이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유달산의 경관을 보존하고 정주여건을 갖추면서도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성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 북항 활어회플라자 시설 현대화...해수살균시스템 구축

해수관로 확충·배관 정비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목포시 북항동 활어회플라자 내 노후화된 부속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등 상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최근 깨끗한 해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활어위판장과 활어회플라자 상가로 유입되는 해수관로를 확충하고 배관을 정비했다. 또 자외선 해수살균 시스템을 구축해 활어회플라자로 들어오는 해수의 질을 높였다. 그동안 노후화로 잦은 고장을 일으켜 시설 개선 명령을 받았던 오페수 처리시설도 개·보수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수산물 상생할인 판매전'을 통해 소비자는 싱싱한 수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어민과 상인들은 판매 촉진으로 소득을 올리는 상생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가 관리·운영하는 목포활어회플라자에는 수산물 직판장 36개소와 대형식당 1개소 등이 입주해 있다. 코로나19로 영입이 주춤하면서 대형식당 공실이 3곳으로 늘었다가 최근 1곳



목포수산물유통센터가 관리·운영하는 목포시 북항동 활어회플라자.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제공>

이 입주해 영업 중이다. 센터는 추가 공고를 내 나머지 2곳을 임대할 방침이다. 강호수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은 "노후화 시설 개·보수 공사와 수산물 특별판매 행사를 기획해 꽤

적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목포활어회플라자로서 거듭날 것"이라며 "목포시 3대 공약 중 하나인 수산식품 산업의 대표 센터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완도군, 보길·약산·금일·고금권역에 352억 투입 어촌 성장 이끈다

완도군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4개 권역이 선정돼 총사업비 35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생활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어촌 소득 증대 및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경제 조성이 목적이다.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길권역은 보길 애송, 예작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130억원을 투입한다. 애송-예작도 해상 진입로와 커뮤니티센터 '오우

정'·예술마루 '소소재' 조성, 마을 공동 브랜드 민박 섬 스테이 '어부사기'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애송-예작도 해상 진입로와 오우정, 소소재 조성 사업을 착공, 연말 준공 목표다. 2019년도 선정된 약산권역으로 작용리 외 3개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63억원을 들여 다목적 체육 시설과 작은 도서관, 직거래 장터 등이 들어서는 약산 낙원과 약산 장용항 다목적 어민 쉼터를 중점 조성한다. 약산권역은 기본계획 승인 협의 중이며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금일권역은 동송, 궁항, 용항 마을을 대상으로 5년간 90억원을 투입해 안전 거점항 조성, 정장년 교류센터, 육아·돌봄 복지회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금일권역은 2024년까지 마무리된다. 고금권역은 올해 선정됐으며 향동, 적찬, 화성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총사업비 69억원을 투입해 마을 공동 작업장, 어구 공동 보관소, 문화센터, 자원 순환시설 등을 갖추고 직거래장터를 조성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 증대 창출도 꾀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기자 노트

의원 갑질 vs 의정 겁박



박종배 제2사회부 부장

목포시의회 정문 출입구는 의원 갑질을 성토하는 목포시청공무원노조의 피켓 시위로 연일 시끄럽다. 목포시청직원노조는 "목포시청 직원은 코로나19의 살인적인 업무보다 최홍림 의원 갑질이 더 힘들어하고 있다"며 "직원 인권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의원의 자료 요구에 의원실을 방문했던 목포시청 7급 공무원 A씨는 "바보·멍청아, 술밥 얻어먹으니 까 업무를 이 따위로 처리하지. 시발서 제출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모욕감에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6개월 간 장기 휴가를 신청했다. 질환이 생긴 원인이 목포시의회 부의장 최홍림 의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무원노조는 A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 의원의 갑질 사례를 조사해 17건의 자술서를 확보했다. 자술서에는 폭언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 등 최 의원의 일탈을 비난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지난 4일 공무원노조는 노조운영위원회를 열고 의회 부의장실을 방문해 최 의원의 공개 사

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반면, 최홍림 의원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부실한 자료 제공으로 2-3차례 보강해 줄 것을 주문한 게 전부"라며 "상스럽고 비윤리적인 언행은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공무원노조 항의성 방문에 최 의원은 "피해 사례가 있다면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공무원과 대면을 요구한다"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두고 공개 사과 하라는 노조의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오히려 노조가 의원 한 사람을 상대로 겁박하고 있다"며 "시위를 비롯한 일련의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오는 23일까지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최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시위를 확대해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동성명을 내는 등 연대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와 의원 간 진실 공방 속에 서로 헐거 루기를 하면서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진흙탕 싸움의 불꽃이 시민에게 튀까 우려된다. /pjb@kwangju.co.kr

영암왕인문화축제 '천인천자문 릴레이' 이벤트

영암군은 '2021 온라인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천인 릴레이 천인천자문' 프로젝트를 지난 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5일간 진행한다. '천인 릴레이 천인천자문' 프로젝트는 광주, 경남 통영, 충북 청주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1인당 지정된 천자문 1자(字)를 작성 후 한자(漢字)를 들고 인증샷을 촬영한다. 1000명이 참여해 천자문을 완성하는 참여형 이벤트이다. 천인천자문 영암 일정은 17일 깜짝 이벤트로 진행됐다. 현재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820자(字)를 완성했다. 한편, 2021 온라인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오는 4월1일부터 16일까지 축제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북권 기자 jbh@kwangju.co.kr



영암군은 다음달 4일까지 '2021 온라인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천인릴레이 천인천자문' 이벤트를 진행한다.

진도군, 20일부터 토·일요일 '진도 시티투어 버스' 운행

진도군은 주말 동안 보배섬 진도의 관광명소를 관람할 수 있는 '진도 시티투어 버스'를 오는 20일부터 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티투어 버스는 수도권 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목포 등 전남 서남부권 관광객을 위한 여행 상품으로 남악·하당·목포역을 경유해 진도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당일 상품이다.

토요일 코스는 토요일속공원, 진도개테마파크, 윤림산방, 진도타워 등이다. 일요일 코스는 진도개테마파크, 윤림산방, 송가인마을, 진도타워, 진도명품관 등 진도의 관광 명소와 문화예술 체험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성인은 7000원, 초·중·고등학생은 3000원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